

## 〈추진부서〉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(031-828-2931)

### 커튼 설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! 〈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〉

#### • 개선배경

-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·설비와 분리해야 영업 신고 가능함
- 숍인숍(shop in shop)형태로 운영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, 영업장 내 타 업종과 공중위생영업을 동시에 신고(미용업 공동 사용 제외)하는 경우 별도의 출입문 설치 또는 방·벽·층 등으로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된 경우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공사비 발생 등 영업주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만 야기

#### ▶ 현실에 맞지 않는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건의

##### 〈미용업 현황〉

- 미용업은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0% 이상 차지하며, 전체 미용업의 22%가 경기도에 위치
- 경기도 내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는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66% 이상
- 의정부시 공중위생업소 2천여개 중 미용업은 1천 4백여개로 70% 이상 비중 차지

※ 관련규정: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1. 일반기준

#### • 개선내용

개 선 전	개 선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·설비는 분리되어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중위생영업장과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·설비는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함 →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장소 구분</li> </ul>

#### • 추진과정

- 의정부시는 우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위하여 '규제개혁추진단 보고회'를 개최, 해당 건의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추진
- 관련 분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'경기도 시군 순회간담회'에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·논의하고 합동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도출

-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별표1, '분리' 규정을 '구획이나 구분'으로 완화하도록 개정 ('19.12.31.)

## • 개선효과

- 흡인습 등을 포함한 별도의 분리 없이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 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확대로 일자리 창출 가능 및 영업주의 편의 도모
- 시민의 편의증진과 수요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흡인습 매장 증가로 관련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신고 건수 증가
- 기존 벽이나 방으로 구분되어 있던 공간에 다른 사업자 입점 시 기존 설비 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폐기물 처리 등 낭비 절감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적 확대 적용되어 많은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파급효과 실현



〈옷가게 내 커튼으로 구획한 네일숍〉  
영업신고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 
영업이 불가함



〈미용실 내 가발판매〉  
구획만으로 미용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